

3. 병란후의 순천사람

1) 병란의 복구와 향안시기

임진·병자 양란의 발생으로 지역에 따라 지배세력의 판도에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위기상황이 이들의 존재를 위축시켰다기보다 오히려 세력의 구심점을 형성시킨 동기가 되었다. 사림 출신들의 의병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순천지역은 특히 임진왜란의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직접적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임진왜란 유공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복구작업에서도 사림의 활동이 컸다. 다른 지역에서는 병란으로 향안이 과치(罷置)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 반면 이곳 순천에서는 오히려 임진왜란 직후인 1605년에 작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 역시 병란 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 지역의 성격을 나타낸 현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순천사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옥천서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1565년에 정사로 지어져 1568년에 사액과 더불어 서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1597년의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어 1604년에 당시 원유(院儒)로 있던 허건·심윤·정지추 등의 주동으로 중건되었으며, 1653년에는 조시일·이율 등이 중수하였다.(혈읍원우사적)

허건은 1605년에 작성된 향안(한력 32년 정월일 순천부유향좌목)에 등재되어 있고, 정지추도 이 향안의 「자제질(子弟秩)」과 1623년 향안(한력 3년 오월일 순천부유향좌목)에 등재되어 있다.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유일조(遺逸條)에 허건의 자는 여수(汝守), 호는 연파(蓮坡)로 18세 잠(潛)의 아들이며, 선조 때 주부(主簿)를 지냈고, 지봉 이수광과 교유하였다고 나와 있다.

이들은 1617년 순천팔마비 중건 때도 활약하였다. 이의 전후 내막은 이수광의 「중건음기(重建陰記)」에 상세히 기록되었다.

순천팔마비 「중건음기」¹⁾

나(이수광)는 일찍이 「허지승람」을 보면서 최석(崔碩)의 팔마비 일에 대해 흥미하고 있었다. 작년(1616)에 내가 이곳에 왔을 때 고을의 대표가 방문하여 그 이유를 물은 즉 팔마비가 정유병재에 훼손된 이후 복구되지 않은 채 20년이 지나 이를 도모한 즉 읍의 현장자(賢長者)인 허건과 생원 정지추 등 몇 명이 비용을 모아 해를 넘기지 않고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최공의 일은 지금부터 400년 전의 일인데 민간에서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가 없더라도 구비(口碑)가 존재하니 구구하게 돌을 깎을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사람들에게 겉으로 알리는 데는, 비가 실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옛날 부사 최원우가 넘어진 비석을 일으켰다고 하여 시로써 이를 자랑한 정도였는데, 하물며 이제 없어진 것을 중건하는 일에 있어서라. 이 일을 추진하는 인사들이 염사이고 이 비가 탐욕한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불선을 고치게 하는 것이므로 이 비를 세우는 나 자신의 자랑일 뿐 아니라, 풍기와 관련이 심대하여 세인들이 유애비(遺愛碑)로 여기는 것이다. 이 일이 성사됨을 마음 속으로 기뻐하여 거듭 읍인들의 뜻을 기려 이와 같이 그 전말을 적어본다.(부기에서는 요양의 화표주 예에 따라 이수광의 이름을 기문에 밝히지 않는다고 하였다)

1) 『全南金石文』42, 順天八馬碑 「重建陰記」(1617); 이수광, 『鬚峯集』 권23, 「順天府重建八馬碑陰記」 참조. 이수광의 재임기간은 1616년부터 1618년까지이다.

팔마비의 복구에 비록 부사의 힘을 빌기는 했지만 임진왜란 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두 가지 중건활동은 이전 시기와는 달리 이곳 사림들의 규모가 양적인 면에서 확대되어 조직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겠다. 실제 이들은 이미 1605년부터 ‘향안 작성’을 통해 조직을 이루어갔다. 다음은 1605년에서 1721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작성된 향안에 실린 이곳 사족들의 명단이다.

만력(萬曆) 32년 정월일 순천부 유향좌목』(1605)

동 지	성운문	첨 정	이기윤
첨 지	조덕령	유 학	조 진
유 학	장 위	생 원	조 경
참 봉	조 무	봉 사	허 경
첨 지	이기남	유 학	박 간
진 현감	정사준	유 학	안 광
충의위	한충민	참 봉	장홍도
유 학	허 건	첨 정	이기준
유 학	박민의	별 제	허 전
충의위	유 방	봉 사	조 각
유 학	신연호		도 할
사 평	정사횡	관 사	도 할
주 부	유 섭	유 학	안 성
유 학	최경복	유 학	허 령
봉 사	정사정	유 학	장홍경
유 학	정 순		
유 학	조 명		
유 학	유 혼	「자제집」	
충의위	유 혜	선전관	이항립
유 학	조 계	주 부	장홍의
봉 사	정 빈	봉 사	정 선
유 학	조 협	유 학	조 탁
유 학	조 현	봉 사	조 수
봉 사	안 용	유 학	정지추
유 학	박 근		

좌수 허, 별감 장·이·안

천계(天啓) 3년 오월일 순천부 유향좌목』(1623)

동 지	성운문	진 현감	허 경
첨 지	이기남	참 봉	장홍도
유 학	성응지	전만호	이기준
유 학	박민의	유 학	박 해
충의위	유 방	첨 지	허 전
유 학	신연호	유 학	신 길
사 평	정사횡	첨 지	장홍적
봉 사	정사정	사 과	조 각

유 학	조 명	유 학	허 령
유 학	유 혼	생 원	정지추
충의위	유 혜	첨 지	장홍경
봉 사	정 빈	유 학	장홍립
유 학	조 협	유 학	이기현
유 학	김 엽	유 학	장홍민
봉 사	안 용	유 학	허 함
유 학	조 규	유 학	최 흠
유 학	유명남		
생 원	조경(전 현감)	「자제질」	
전 부정	정 선	유 학	조운찬
전 만호	(도할)		
전 주부	조 숙	좌수 정,	별감 탁·조

경진(庚辰) 7월 19일 순천부 유향좌목』(1640)

유 학	유 혼	유 학	이 운
전 현감	정 빈	생 원	정 회
첨 지	최경형	유 학	장구공
생 원	조 경	유 학	안수량
전 주부	조 숙	유 학	허 감
유 학	박 해	충 의	유시화
첨 지	장홍적	유 학	장구정
유 학	장홍양	유 학	조시명
사 과	조정일	유 학	정운형
유 학	이기현	유 학	정세형
유 학	허 함	유 학	장구용
유 학	조운찬	유 학	임 즈
유 학	최 흠		
유 학	김정두	「자제질」	
유 학	조의길	유 학	조시민
유 학	박희설	유 학	조유경
유 학	이 율	진 사	조시술
진 사	조시일	유 학	허 평
유 학	허 단	유 학	정광형
유 학	박희운		
유 학	박희증	좌수 장,	별감 허·조·허

갑술(甲戌) 3월 28일 순천부 유향좌목』(1694)

유 학	장 형
유 학	양진웅
진 별제	조진노
출 신	양한웅
유 학	조지빈
통덕랑	정대형

제
향유사 양
향노 장

친축(申丑) 4월 29일 경진 8월 초10일안복적향안(案復籍鄉案)』(1721)
유 학 장 형
출 신 양한웅
생 원 조유원
유 학 이정서

제
복적시회원 조 위, 이방욱

